

# 남도의 섬에는 저마다 독창적이고 풍부한 스토리가 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남도의 섬과 바다 이야기

고석규 지음



여수 거문도는 구한말 영국군이 2년간 불법 점령했던 역사를 지닌 섬이다. 거문도 중 고도. <민속원 제공>

섬에 대한 관점은 저마다 다르다. 역사, 문화, 관광, 언어, 자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각기 상이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해안의 절경, 이색적인 풍습, 풍미가 깃든 음식 등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의 시대, 특히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섬은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무엇보다 특유의 이야기가 날려 있어 무궁무진한 스토리텔링의 보고이기도 하다.

전남에는 여는 지역마다 독창적이고 다양한 섬들이 많다. 전국 섬의 60% 이상이 있을 만큼 곳곳에 산재한다. 어림잡아 2000여 개의 섬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신안, 완도, 진도, 여수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다양한 소재와 풍부한 스토리가 있는 전남의 섬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발견됐다.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이 펴낸 '남도의 섬과 바다 이야기'가 그것. 저자는 역사와 문화를 담은 이야기 창고로서의 섬과 바다를 주목한다.

저자는 전작 '역사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역사'에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시간과 역사의 관계, 조선시대 역법과 역사, 다양한 시계 발달의 역사를 조명한 바 있다. 거시적인 틀에서 보면 시간은 섬과 바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수렴된다 하겠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역사', '유배와 표류', '섬과 사람들'을 카테고리리 남도의 섬과 바다를 들여다 본다.

예로부터 서남해안 섬들은 한·중·일 삼국을 잇는 교류의 가교역할을 했다. 해로 교통이 활발하던 고대 시대일수록 바다는 최고의 운송로였다. 또한 해로와 접한 영산강은 문물과 문화가 교섭되고 전이 되는 해상로의 길목이었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때도 남도의 섬들은 해양의 거점이었다. 아울러 당시에는 편제도 바뀌었는데 고려 왕조는 통일신라에 비해 섬에 대한 파악을 확대했다. 그러다 고려 후기 왜구의 잦은 침략으로 공도(空島)정책을 펴면서 주민들은 생업을 잃었고 섬은 버려졌다.

그러나 이후 조선 후기에는 안정을 찾으면서 개

척의 땅으로 섬이 부각됐다. 입도의 물결이 밀려왔고, 전라좌·우수영을 비롯한 수군진 역사는 남도를 이해하는 매개체로 전이된다. 특히 민중의 꿈을 담은 이상향으로서의 섬 이야기는 다양한 소재로 손색이 없다. 민초들은 진인이 나타나 현세의 고통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견지했다.

'유배와 표류'는 섬과 바다의 이야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키워드다. 저자에 따르면 유배를 당한 이들은 비단 양반 관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나인, 관노, 거간꾼, 책장수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었다. 흑산도 유배인들은 대체로 당론(黨論)에 연

루된 양반사족들이 많았지만 영조 때는 언급한 대로 신분과 직종이 다양했다.

그러나 유배인들이 남긴 사연은 그 자체로 '이야기의 창고'가 되었다. 다만 저자는 유배문화가 남도 문화를 이루는 요소에 대해 다소 비판적 관점을 취한다. "오히려 유배인의 유교적 지식을 앞세워 남도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존적 측면이 있다. 유배인들은 섬 사람들을 하대하고 섬의 문화를 경멸하는 쪽이었다"는 관점이 그러하다.

저자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찾았던 압해도, 완도, 신지도, 진도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서남해 섬

들의 허브인 압해도, 호남제일번(海南第一藩) 완도 가리포진, 육지와 다름없는 보배로운 섬 진도를 통해 보편성과 특수성에 주목했다.

저자는 말미에 "좁은 땅"은 비록 작지만 안전하고 안정된 수입을 제공한다. 반면에 '넓은 바다'는 위험하지만 큰 소득을 안겨 준다. 섬사람들은 이 모순되는 두 가지 자연에 적응하면서 독특한 삶을 꾸려왔다. 그런 삶 속에서 다양하면서도 뜻 가득한 섬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민속원·3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실카의 여행

헤더 모리스 지음, 김은영 옮김



18세의 체코슬로바키아 출신 유대인 소녀 실카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난다. 때는 1945년 1월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크라쿠프 몬텔루피치 감옥으로 이동된다. 적군에게 몸을 팔아 살아남은 것이라고 자복한 소련군 내부인민위원회 회가 그녀를 그곳으로 보냈다.

2018년 출간된 영국 아마존에서 일 년 넘게 종합 베스트 10위권을 지켰던 베스트셀러 '아우슈비츠의 문신가'의 작가 헤더 모리스의 후속작 '실카의 여행'이 출간됐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에 이어 또 하나의 세계사 비극이었던 소련 강제노동수용소에서 그보다 오랜 세월을 갇혀 지내야 했던 실존 인물 유대인 실카가 주인공이다. 작품은 18세 소녀의 감동 여정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모았다.

이번 소설은 전작 '아우슈비츠의 문신가' 랄레 소콜로프의 실제 이야기에 등장했던 소녀 세실리아 클라인(실카)의 이야기다. 실카가 아우슈비츠를 떠나 어떻게 됐다는 독자들의 질문이 모티브가 돼 장편으로 그려졌다. 작가는 실카가 살았던 슬로바키아 코시체와 바르데요프 곳곳을 직접 방문하고 그녀의 옛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시베리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현지 연구원의 도움을 받았다. 아울러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여성들, 2차대전이 끝날 무렵 소련의 굴라크로 보내진 여성들의 경험담과 자료를 수집했다.

소설에서 실카는 '추위와 굶주림과 괴로움'의 '하얀 지옥'을 용기와 연민, 우정으로 살아낸 여성으로 그려진다. 16세 어린나이에 고향을 떠나 아우슈비츠로, 시베리아로 극한의 여정에 올랐던 여성이 살은 인간 정신의 승리로 다가온다. <북로드·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세계를 창조하는 뇌, 뇌를 창조하는 세계

다크 스왑 지음, 전대호 옮김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내는 것만이 뇌과학이 아니다. 뇌 탐구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네덜란드 출신 세계적인 뇌과학자이자 암스테르담 대학교 신경생물학과 명예 교수인 다크 스왑은 저서 '우리는 우리 뇌다'를 통해 자궁에서부터 알츠하이머병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매 단계에서 뇌와 관련된 영향력을 규명했다.

이번에 발간된 '세계를 창조하는 뇌, 뇌를 창조하는 세계'는 창조성이 뇌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예술과 감정, 재능과 직업,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범죄와 죽음 등을 통해 뇌와 세계의 관계를 드러낸다.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방식이 생존에 유리했다. 또한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한 소통을 뇌를 발달시키는 요인이었다. 환경의 자극을 매개로 뇌는 예술, 과학, 기술 등 고도의 문화적 환경을 창조해냈다.

살바도르 달리, 빈센트 반 고흐, 모차르트, 슈만 등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은 풍부한 문화적 환경을 만들었다. 이들의 창조력은 무엇에서 기인할까. 뇌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예술가들의 창조력은 일정 부분 정신적인 질병과 관련이 있다. 달리가 그린 기이한 형태는 편두통 발작 중에 경험한 시각적 환경에서 유래했고, 반 고흐가 노란색을 사용했던 것은 엄청난 양의 압센트를 마셔 황시증(黃視症)을 유발했을 거라는 이론도 있다.

저자에 따르면 창조력이 높은 사람들은 정신의학적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그러나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창조적인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더 우수하다. 소수의 창조적 천재들을 제외하면 창조성은 우리 뇌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다. <열린책들·4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배움은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박성일 지음



"모든 표준이 달라지는 뉴노멀 시대, 지금과는 다른 삶의 기준을 제시하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거의 표준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비대면 생활패턴의 증가,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 새로운 생활은 이미 시작됐고, 교육분야에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다.

최근 출간된 '배움은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는 팬데믹 이전과 이후 배움과 교육에 대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시한다.

17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장학사, 교감 등으로 근무했던 저자 박성일은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며 "우리의 인생은 배움의 과정이며, 무언가를 배워 내 것으로 만든다는 실행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배움을 배우다', '배움을 키우다', '배움으로 창의성을 키우다', '배움으로 미래를 준비하다'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새로운 시대의 초입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 혁신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다룬다.

저자는 미래교육은 '역량중심교육'이라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 호기심, 질문, 발견, 융복합, 소통과 협력, 창의 등 새로운 키워드에 부합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학관 광주시교육감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인문학적 성찰의 결과물이다"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새롭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아북스·1만6000원>  
/전성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